

2001 AIDS

2001년과 에이즈 -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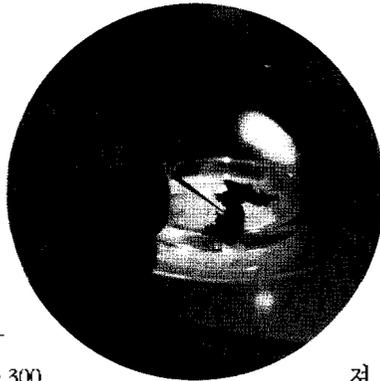
2001년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에이즈 감염인 수가 1,500명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 증가율도 매년 증가하여 올해에는 4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올해 감염인 수가 3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 건수는 아직 적은 수이지만 이런 정도의 증가율은 에이즈의 무서운 전파력을 감안할 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해 최초로 10대 동성애자 2명이 감염되었고 10대 여성도 1명 추가로 감염되어 10대 감염자만 6명이 발견되었다.

또한 70대 노인이 효도관광을 다녀왔다가 에이즈에 감염되고 80세의 한 노인도 감염되어 연령층도 한층 다양해졌으며 작년에 비해 10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비아그라 등의 보급과 박카스 아줌마 등 위험한 성관계의 증가, 노인층에 대한 에이즈 예방교육의 부재로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올해 최초로 발견된 감염경로 중 하나가 정맥주사용

실제 감염인은 2명 이상임을 의미하고 마약사용자들에도 상당수의 감염인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에 비해 에이즈가 전파될 수 있는 감염경로는 훨씬 다양해졌음을 의미한다. 즉 마약사용 주사기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번개섹스, 청소년 매매춘(원조교제), 노래방, 증기탕 등을 통한 주부매춘, 노인 매매춘 등으로 감염경로가 넓어졌다.



마약사용자들이다. 이제까지 한국은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약사용자에 의한 감염보고가 전무한 나라로 알려져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마약주사 사용에 의한 감염이 보고되면서 그 기록이 깨져 버린 것이다.

이는 실제 감염인은 2명 이상임을 의미하고 마약사용자들간에도 상당수의 감염인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에 비해 에이즈가 전파될 수 있는 감염경로는 훨씬 다양해졌음을 의미한다. 즉 마약사용 주사기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번개섹스, 청소년 매매춘(원조교제), 노래방, 증기탕 등을 통한 주부매춘, 노인 매매춘 등으로 감염경로가 넓어졌다.

또한 올해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 중 하나가 '신종 바이러스의 발견'이다. 서울 의대 최강원·오명돈 교수팀이 30대 매춘여성의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기존 A타입과는 다른 새로운 아형의 바이러스를 확인하였다.



이 유형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다른 유형과는 다른 임상경과를 보이며 이는 국내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한가지 유형이 주요한 유형일 때는 감염자가 적었지만 다른 유형과의 조합형이 세력을 얻으면서 감염자가 급증한 경우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불길한 징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올해에 일어난 또 다른 에이즈파동 중 하나가 에이즈 검사 오류 소동이다. 일반병원의 에이즈항체검사서 음성판정을 받은 3명의 환자가 계속해서 에이즈유사 증상을 보여 다시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에이즈환자로 판명된 사건이다.

이는 에이즈 발기에 이르면 면역체계 뿐아니라 항체도 파괴되어 검사 상 위음성으로 나온 특수한 케이스를 마치 모든 에이즈항체검사가 오류 투성인 것으로 마스크를 통해 과장 보도되어 일어난 소동이다.

심지어 한 유력한 국내 일간지는 항체가 형성된 후 90일이 경과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으로 잘못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장보도로 인해 이전에 에이즈 항체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검사결과를 의심하면서 에이즈상남이 폭주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여, 마스크가 줄 수 있는 과장효과를 생각할 때 신중한 보도 자세가 요망된다.

또한 항상 에이즈에 대해 보도할 때 에이즈의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면을 강조하여 에이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지 말고 그런 이미지를 오히려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도하는 태도가 요망된다.

올해에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가 유엔에이즈특별총회의 개최이다. 한국도 12명의 정부 및 민간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정부의 에이즈정책을 홍보하고 향후 에이즈 효율적인 예방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가 국제적으로 월드컵에 대비한 에이즈예방을 홍보한 계기가 된 점이며 중국, 몽고

와 상설보임 성격의 지역별 모임 구성이 제안된 점이다. 간수목 관광객과 이동노동인구의 증가, 국제교류의 증가로 인해에이즈 예방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가 깊은 조치로 사료된다.

향후 에이즈예방사업은 더욱 익명검사를 확대하면서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요 감염원이 되고 있는 미인지 감염인들을 발견해내어 이들을 통한 2차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홍콩의 남성들의 경우 자신들이 에이즈의 위험에 노출이 되었어도 그리고 철저한 익명검사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검사 반기를 꺼린다.

그 이유는 단지 감염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두렵고 수치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의 현행 익명검사/실명등록제는 자칫 에이즈검사 기피를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홍보사업도 그 대상을 너무 학생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매춘여성, 동성애자, 마약사용자들 등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감염이 우려되는 집단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홍보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며 최근 노인층에서 에이즈감염의 10배씩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으므로 노인들에 대한 홍보활동도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그 동안 감염이 보고되지 않아 등한시 되어왔던 마약사용자들에 대한 한층 강화된 교육과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마약주사에 의한 감염은 다른 감염경로에 비해 전파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비록 적은 수이지만 간과해서는 안된다. 방콕의 경우, 마약사용자들간의 에이즈 감염율이 0%에서 40%로 증가하는데 겨우 8개월이 걸렸을 뿐이며 인도에서는 2%에서 80%로 증가하는데 3-4년이 걸렸을 뿐이다.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외국인들에 의한 내국인의 감염뿐 아니라 국내 매춘여성 등을 통한 외국인들의 감염을 차단하여 한국에서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오욕을 받지 않도록 건강월드컵을 위한 활발한 홍보사업이 요구된다. (편집실)